

한중경제포럼

제18-01호 2018년 4월 27일

질적(高质量) 발전 단계로 전환 중인 중국경제

2018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질적(高质量) 발전 단계로 전환 중인 중국경제
2. 일 시: 2018. 3. 29(목) 16:00~18:00
3. 발표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귀춘리(郭春丽) 부소장

1.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 단계 전환: 신(新)시대 중국 경제성장의 특징인 ‘질(质量)’과 ‘효율(效益)’

□ 최근 중국 주요회의에서 경제의 ‘질적’ 발전 중요성 강조

1) 19차 당대회 보고서(2017.10):

-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高质量) 단계로 전환 중이며, 발전 방식의 변화와 경제구조 고도화, 성장 동력 전환에 있어 관건적 시기에 진입함.

2) 2017년 중앙경제업무회의(2017.12):

- 질적 발전은 경제운영 기본 방침이며, 질적 발전에 필요한 지표와 정책 시스템·표준화 시스템·통계 시스템·실적평가·정치업적 심사 등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함.

3) 2018년 정부업무보고(2018.3):

- 안정 속 발전 추구(稳中求进)를 기조로 설정하고, 질적 발전을 위한 ‘오위일체(五位一体: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추진, ‘4개 전면(四个全面: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国)²⁾, 전면적 중엄치당(从严治党)³⁾의 전략적 배치 추진,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또한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 복지 확대, 리스크 방지 등을 추진하고 질적 변화, 효율 변화, 동력 변화를 가속화함.

□ 투입산출을 통해 본 질적 변화

1) 투입 측면에서 질적 변화

-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

- 노동자의 평균 교육기간이 2000년 7.2년에서 2015년 10.2년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신규 노동자의 평균 교육 기간은 13.3년을 초과
- 일반 대졸자와 석·박사 수도 2000년 대비 각각 7.4배, 9.6배 증가
- 2017년 귀국 유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며 60만 명을 기록

- 과학기술 혁신 관련 지표의 질적 향상

- OECD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출원한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 미국, 일본, 유럽에 모두 등록된 특허)의 세계 비중이 2010년 2.7%에서 2016년 약 6%로 증가(연평균 0.5%p 증가)
- 2007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의 국제 피인용 횟수 순위가 지속 상승하며 영국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함.

그림 1. 2000~2017년 출국 유학생 수와 귀국 유학생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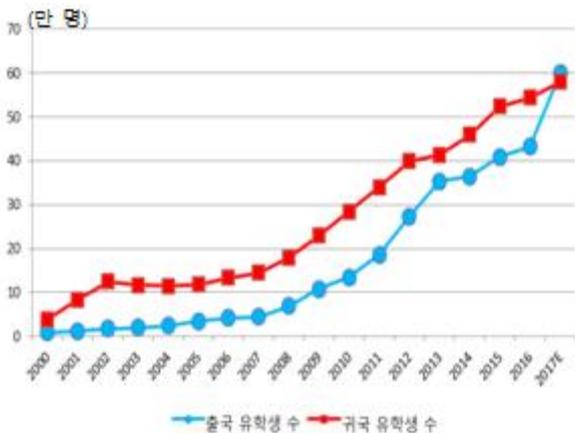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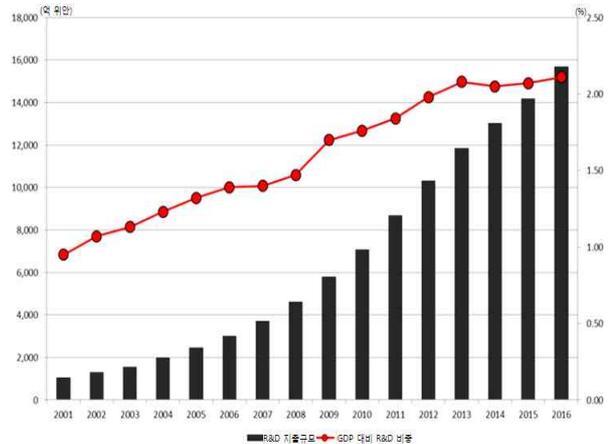


그림 2. 2001~2016년 GDP 내 R&D예산 비중 추이



- 자본 요소의 질적 향상

- 중국의 기초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함.

- 1)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 2) 법에 의거한 통치
- 3) 엄격한 당 관리

- 2017년 기준, 철도 총 연장은 2000년 대비 1.8배 증가한 6만 9,000km를, 도로 총 연장은 2000년 대비 2.8배 증가하여 470만 km를 기록
- 이어 고속도로 총 연장은 2000년 대비 8.3배 증가한 13만 6,000km를 기록했고, 고속철도 총 연장은 2만 5,000km로 전 세계의 2/3를 차지(2008년 대비 35배)하였으며, 내륙 수로는 2000년 대비 1.1배 증가한 12만 7,000km를 기록

그림 3. 2015년 세계 주요국의 GDP내 R&D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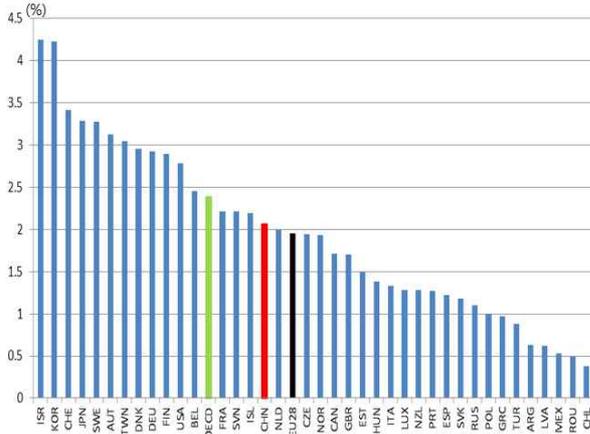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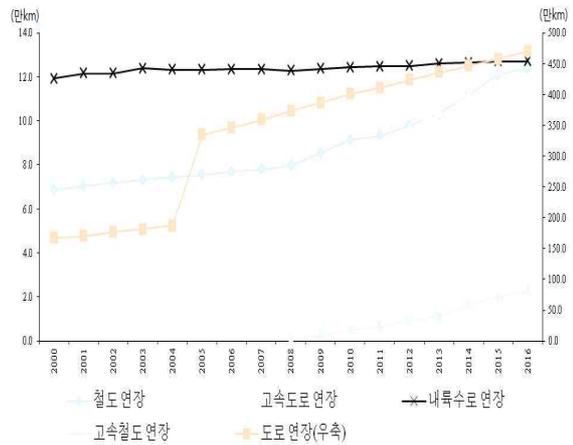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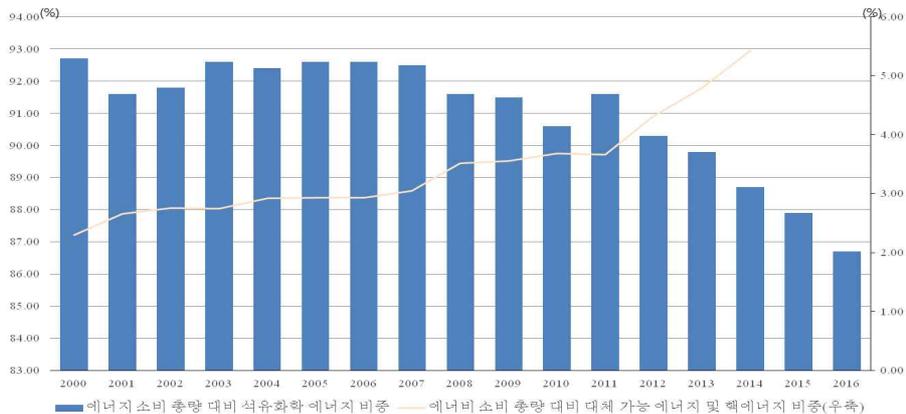
그림 4. 중국 교통 인프라 변화



에너지 요소의 질적 향상

- 2016년 비(非)석유화학 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2012년 대비 7.4%p 증가하며 35%를 기록
- 석탄 소비 비중은 2012년 대비 6.5%p 감소한 62%를 기록했으며, 석유화학 에너지 소비 비중도 최고 수준이었던 2011년의 91.6%에서 86.7%로 감소

그림 5.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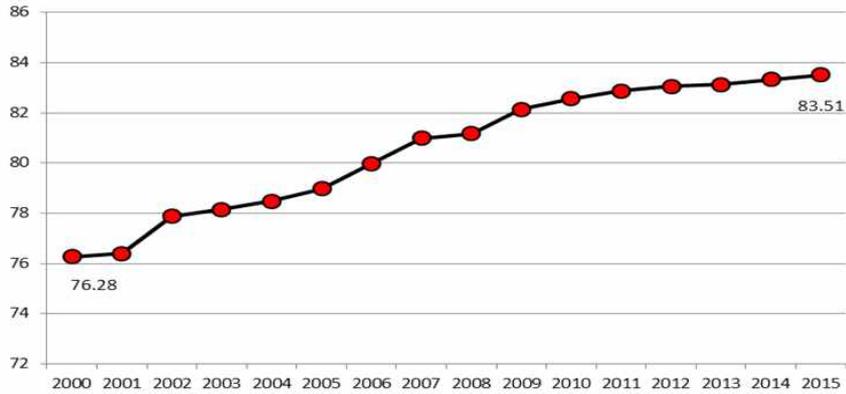
2) 산출 측면에서 질적 변화

제품과 서비스의 뚜렷한 질적 향상

- 2000년 중국의 제조업 품질 경쟁력 종합지수는 76.28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 83.51로 상승함.
- 제조업 제품의 품질 합격률은 2009년 86.9%에서 2015년 95.4%로 상승함.

- 제품과 서비스의 녹색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제품에 친환경 설계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실현됨.

그림 6. 2000~2015년 제조업 품질 경쟁력 지수



□ 거시적 · 미시적 차원에서의 효율 개선

1) 거시적 측면의 효율 개선

- 노동생산성 향상

- 중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만 5,200위안에서 2016년 9만 5,900위안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0~2011년(연평균 0.46만 위안 증가)보다 2012~2016년(연평균 0.64만 위안 증가)에 더 빠르게 향상됨.

- 경제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⁴⁾의 기여도 제고

- TFP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2년 32%에서 2016년 40.7%로 8.7%p 증가함.

그림 7. 2000~2015년 중국의 총 노동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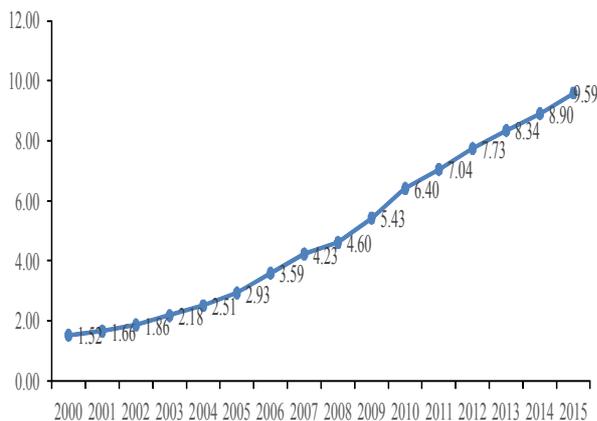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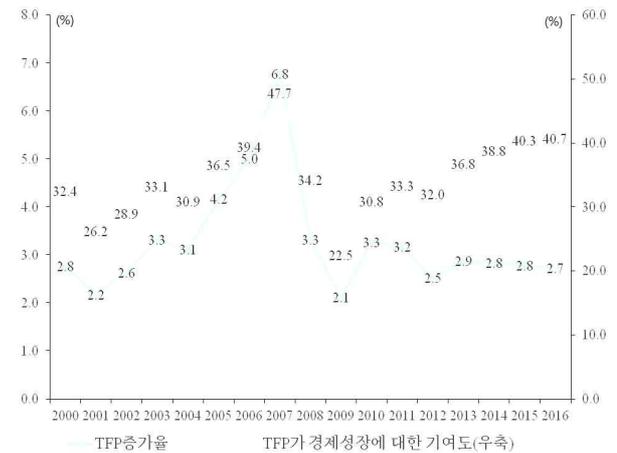


그림 8. 2000~2016년 중국의 TFP 증가율 및 경제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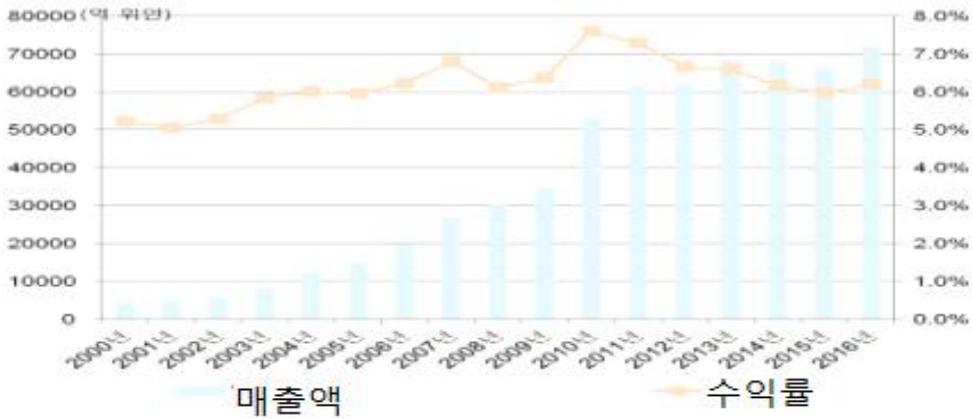


4)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8. 4. 17)

- 미시적 측면에서의 효율 개선

- 규모이상 공업기업 수익률은 2010년 7.6%에서 2015년 6.0%까지 하락했으나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6.2%, 6.4%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함.

그림 9. 2000~2016년 규모이상 공업 기업의 매출총액(세전)과 수익률



□ 장단기적 측면에서의 성장동력 전환

1) 수요구조 고도화

- 2011년을 기점으로 최종소비율이 점차 회복되면서 2016년 53.6%를 기록
 - 2017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8.8%를 기록함.
 - 투자율이 2012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44.2%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32.1%까지 하락함.
- 주민소비가 '주택교통과 서비스 소비' 를 중심으로 고도화됨.
 - 주택 및 교통(교통, 차량구매 등) 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소비규모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서비스 소비의 증가속도가 빨라짐.

2) 투자구조 고도화

- 3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 증가속도(2017년에 전년대비 15.9% 증가,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6.8%)가 전체 제조업 투자의 증가속도를 상회함.

그림 10. 2000~2016년 중국 최종소비율, 자본형성률, 순수출률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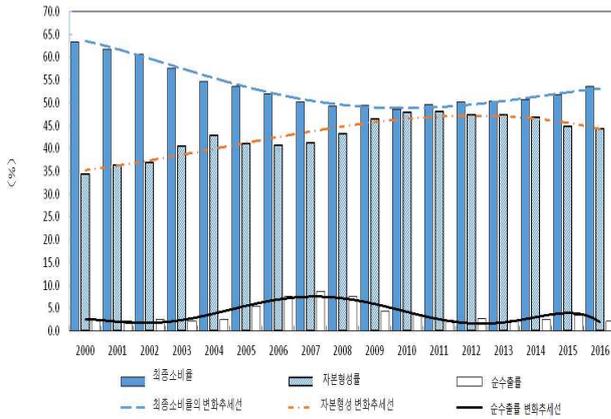


그림 11. 산업별 고정자산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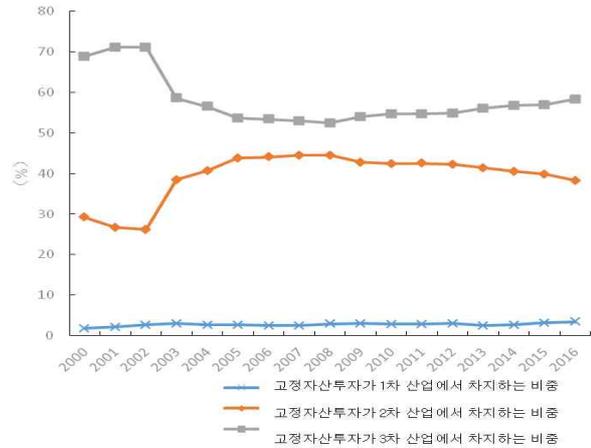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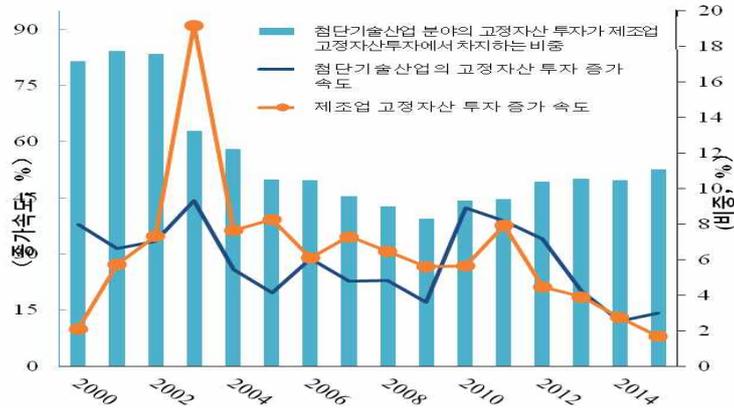


그림 12. 첨단기술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비중 변화



3) 무역 구조 고도화

- 공업 완제품의 수출 비중이 2000년의 89.7%에서 2016년 95%로 증가함.
- o 가공무역의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발전했으며, 대외무역에서 신제품, 신업체, 신모델이 지속적으로 출현함.

□ 장단기적 측면에서의 성장동력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1) 1·2·3차 산업 비중의 최적화

- 중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2013년 처음으로 공업 부문을 상회하였으며, 2017년에는 51.6%를 기록하면서 서비스업 주도의 신(新)시대에 진입

2) 공업 발전이 질적 발전단계로 전환

- 장비제조업과 첨단기술 제조업이 공업 생산증가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임.
- o 2016년 장비제조업의 공업 발전 기여도는 2012년 대비 22.7%p 증가한 50%이며, 2017년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에서 장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7% 기록

- 첨단기술 제조업의 공업발전 기여도는 10.5%p 증가한 21.6%, 2017년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에서 첨단기술제조업의 비중은 12.7% 기록
- 2017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의 평균 증가율(6.6%)을 상회
- IT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스마트폰과 신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로봇 등의 시장규모는 세계 상위권으로 도약
- 2017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69만 대, 스마트 TV 생산량은 3.8배 증가한 9,666만 대, 민용 드론 생산량은 67% 증가한 290만 대 기록
- 3) 서비스업 발전과 신동력의 지속적 강화
 - 2013~2016년 사이 규모이상 신흥 서비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13.5%를 기록하였고, 이는 규모이상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 보다 3%p 높은 수준임.
 -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업이 고속 발전
 - 소비고도화를 통해 관광, 문화, 체육, 건강 및 양로, 교육훈련 등 '행복 산업(창의성과 즐거움을 주는 업종)' 이 고속 발전함.
- 4) 농업 생산의 안정적 증가와 인프라 확대
 - 2016년 농업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가 56.2%를 기록
- 5) 요소투입 구조 고도화
 - 노동과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한 반면에 TFP의 기여도가 상승함.

그림 13. 중국의 산업 구조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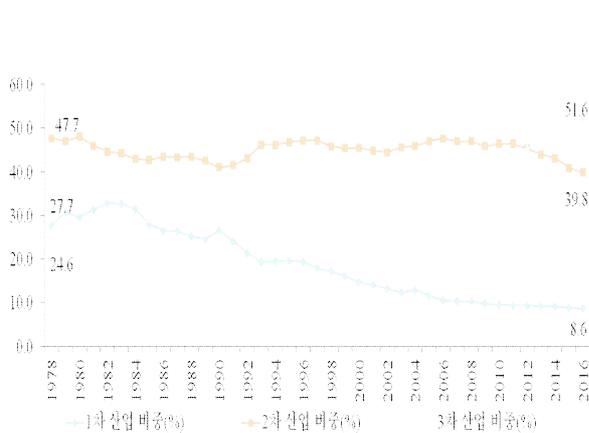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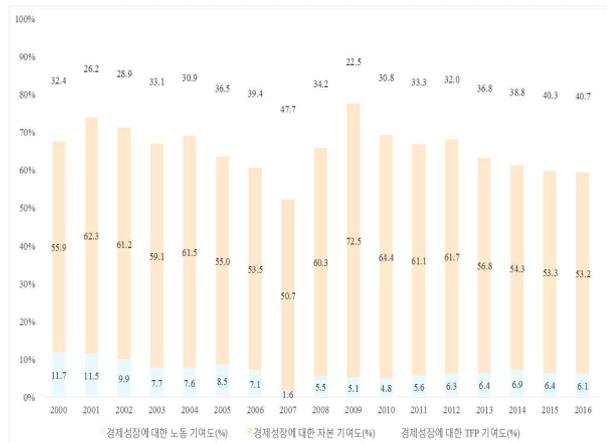


그림 14.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 자본, TFP 기여도



2. 경제의 질적 발전 추진

□ 질적 변화 촉진

1) 생산요소의 질적 개선

-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과잉되거나 낙후된 생산력을 퇴출시키고 있으며, 신제품과 서비스가 지속 출현

2) 질적 성장을 위한 생산요소

- 인적자본

- 교육 현대화, 전인교육, 도농 의무교육의 통합 발전, 직업교육, 고등 교육 보급, 고등교육 구조 고도화(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의 가속화), 민족교육 등을 추진

- 물질자본

- 고품질의 기술 장비와 인프라 시설 확보, 공급구조 고도화에 대한 투자 역할 강화, 중·서부지역에 철도·도로·수리시설 투자 확대
- 기술 개선 및 고도화 추진, 철도·민용 공항·가스·전자통신 등 분야의 프로젝트 발주 통해 민간투자 유치

- 과학기술 성과

- 더 많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 촉진,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 강화(고표준 국가실험실 건설)
- 혁신 인센티브 정책 실시, '대중창업과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추진

- 에너지자원

- 비석유화학 에너지 발전 추진, 태양광에너지·풍력에너지·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

3)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

- 품종 증가, 품질 제고, 브랜드 육성, 제품의 과학기술과 인문적 가치 수준 제고

- 공업제품의 기술향상·표준완비·브랜드 구축·품질관리를 전국 추진하여 선진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중국 제조업의 품질 혁명 추진

- 농산품 표준화 생산, 브랜드 구축,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추진

- 서비스업 발전 추진, 규범적 발전, 표준화, 단점 보완,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서비스 공급 확대

□ 효율 변화 촉진

1) 거시 측면

- 노동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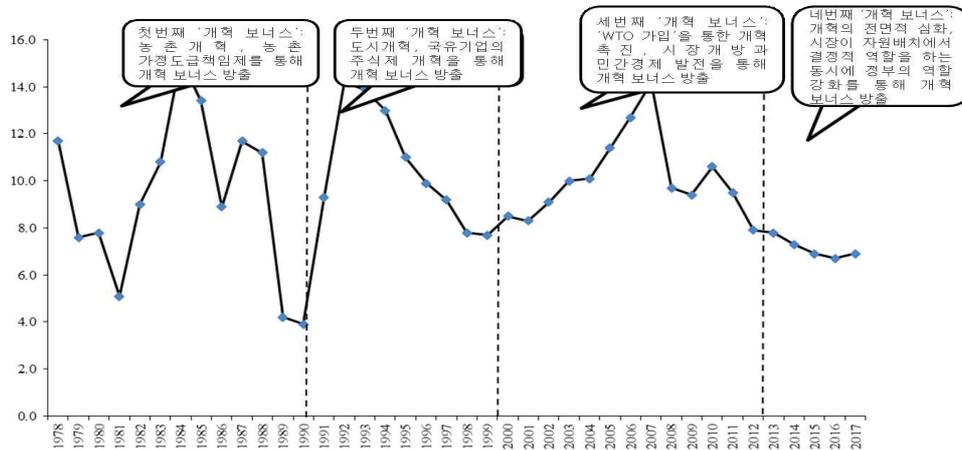
- 노동자 1인당 자본 및 인적자본 역량을 제고시키며,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

- 자본 산출액 비율 제고

- 투자구조 고도화 추진, 정부 투자방식 개선

- 민간투자 장려, 정부 투자의 견인역할 강화, 민생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
- 중요소생산성(TFP) 제고
 - 기술혁신, 제도혁신 추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지속 추진
 - 국유기업 개혁 추진: 민간기업 발전 지원, 재산권 제도와 요소 시장화의 분포 메커니즘 완비, 재정조세 체제 개혁 심화 및 금융체제 개혁 가속화, 사회체제 개혁 추진 및 생태문명 체제 구축
 -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 형성: '일대일로' 국제협력 추진 및 외국인 투자의 안정적 증가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하며, 무역 자유화와 투자 원활화 촉진

그림 15. 중국의 시기별 개혁사례



2) 미시 측면: 기업 경영효율 제고

- 국유기업 개혁 추진
 - 양호한 기업 환경 마련: '정부의 권한 이양, 기능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放管服)' 를 추진하여 기업설립 허가 시간 단축, 상표등록 주기 단축, 공사 건설 프로젝트 심사 허가 시간 절반 이하로 단축 추진
 - 기업 조세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세율 구간을 3개 등급에서 2개로 조정하고, 제조업과 교통 운송업 등 업종의 세율 경감 및 소규모 납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을 상향, 소득세 50% 면제 정책 적용 소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 기업 준조세 부담 대폭 경감: 행정 사업성 비용을 규범적으로 처리하고, 일부 정부성 기금 징수 표준과 전기세, 도로통행세, 교량통행세는 하향 조정

□ 동력 변화 촉진: 공급-수요 연동, 장단기 결합, 신동력 육성

1)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와 산업고도화 촉진

- 신동력 발전 확대:
 - 빅데이터 발전과 차세대 인공지능의 R&D 및 응용 강화
 -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와 '인터넷 플러스' 융합 확대
 - 디지털경제 및 공유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스마트 산업 발전과 스마트 생활 범위 확대 추진
 - 신기술, 신업태, 신모델을 활용해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

- 제조 강국 건설 가속화
 - 반도체·5세대(5G) 이동통신·항공기 엔진·신에너지 자동차·신소재 등 분야와 산업 인터넷 플랫폼 발전 추진
 - 비효율적 공급 해소
 - 시장화·법치화 수단을 활용하고 환경보호·품질·안전 등 법규 표준을 엄격하게 집행
 - 과잉생산 해소 및 낙후된 생산력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8년 철강 3,000만 톤, 석탄 1억 5,000만 톤 등의 생산 감소 추진
 - 농업 분야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인터넷 플러스(+)' 농업 을 추진하여 산업 간 융합 발전을 촉진
- 2) 주민소비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메커니즘 구축
- 산업태, 신모델 소비 발전, 소비의 질적 발전과 투자의 지속가능성 향상, 무역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경쟁우위 분야 육성
- 3) 경제성장에서 생산요소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과 효율 향상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요소를 확대
- 4) 질적 발전에 필요한 지표·정책·표준·통계 시스템 구축, 실적·성과 평가·정치업적 심사 등 제도적 환경 혁신 및 개선

질의응답(Q&A)

Q 1. 총요소생산성(TFP)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향상되었다는 평가와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TFP 통계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자체 조사하여 발표 하는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접 연구하는지 궁금함.

A 1. 총요소생산성(TFP) 관련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경제연구소에서는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계산하여 사용함. 해당 결과 값은 최근 몇 년간 해외대학에서 발표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총요소 생산성의 중국경제 기여도) 현재 중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총인구수에서 노동인구 비중이 매년 1%p씩 감소 중이며, 경제성장엔 대한 인적자본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 성장률이 6.5~7%의 중고속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기술혁신으로 인해 TFP 기여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임. 또한 2013년 18차 3중 전회에서 제시된 전면적 개혁 심화로 인해 각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최근 몇 년간 중국경제 성장률을 보면 TFP의 기여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임. TFP는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을 통해 향상되는데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유전자기술 등의 생산성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제도개혁을 통한 TFP 기여도 향상은 개혁보너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함. 개혁 추진이후 약 2~4년에 걸쳐 개혁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3~5년 이후에야 TFP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중국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 각각 추진했던 개혁은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과로 나타남.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4번째 개혁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개혁으로 평가되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등 각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보너스가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함.

Q 2. 올해 양회에서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개혁 이슈들이 제시되었는데 향후 TFP 기여도 제고에 가장 중요한 3 가지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A 2. 개인적 견해이며, TFP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기술혁신이라 생각함. 중국 정부는 현재 기술혁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대학에 집중된 혁신자원을 향후 기업으로 분산토록 유도할 것임. 기업에 더 많은 혁신자원이 분산될수록 시장에 필요한 혁신이 더 많이 늘어나고 기술 사업화 성과로도 이어질 것임. 중국내 연구소 대부분은 기술 사업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음. 그리하여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 실험실도 점점 더 개방하고 있음. 아울러 기술혁신과 관련된 체제혁신을 추진해야 함. 과거 기술혁신 평가에는 특허신청·등록 수, 국제논문 발표 수 등을 중시하였는데 향후에는 기술의 생산력 전환, 기술 사업화 등을 더 중시해야 할 것임.

다음으로 개혁이 중요함. 중국은 이번 경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 및 요소의 시장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 중국은 과거 민간기업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부족했으며,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요소의 시장화는 토지, 노동자 등 요소가 아직 시장화 되지 못했음. 특히 도시에서 농민공이 취업한 경우 동일 업종에 종사하나 도시 노동자에 비해 불평등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토지는 지방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저가 회수한 후 다시 고가로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하여 중국의 28개 현·시(縣市)에서 토지 시장화를 추진하였는데 규정에 부합하면 농민이 직접 부동산개발업체와 협상도 가능해짐.

노동자 시장화는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인적자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TFP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특히 중국은 인적자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개혁 개방 이후 2011년까지 중국은 9.8%~10%의 고속성장률을 유지하였는데 그 중 1%~1.5%는 농촌 노동자가 도시 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취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외 금융자원도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과거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자원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자본시장의 융자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함.

마지막으로 행정관리를 비롯한 정부개혁이 중요함. 중국정부는 2012년부터 행정 간소화 및 감독관리 강화,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공업 관리 체제, 시장주체,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이양 등의 개혁을 추진함. 올해 전국 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개혁개방 이후 8번째로 이뤄진 것임.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국가 거버넌스 체제의 현대화 실현임. 구체적으로 정부의 관리 고도화와 역할 강화, 시장 감독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시장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개선 촉진임.

2016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실물경제 기업 비용 절감 방안' 을 발표함. 동 방안은 실물경제와 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금융비용과 에너지·물류·인적·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됨. 금번 조직개편은 주로 정부 기능조정과 조직 정리를 통해 기업의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예를들어 통관시간 50% 단축, 기업 설립시간 단축, 프로젝트 심사허가 시간 단축, 기업 신규 등록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효율 개선 뿐 만 아니라 TFP 향상도 가능케 함. 현재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익을 양보하고 금융기업이 기업에 대해 이익을 양보하고, 자원기업이 가공기업에 대해 이익을 양보하도록 관련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 될 것임.